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정책연구센터 News Letter 2010 여름호 (통권 13호)

○ 발행인 : 김태완 ○ 편집인 : 김홍원 ○ 편집위원 : 임현성, 김유리, 양애경, 이성원

방과후학교 짱검다리

News Letter

2010

여름호

내 용 안 내

- | 짱검다리 단상 1
- | 특기·적성교육이 학교현장에서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3
- | 교육청 소식 5
- | 방과후학교에 꿈과 열정을 심는 사람들 9
- | 방과후학교 뉴스 13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정책연구본부 방과후학교정책
연구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하여 국가 차원의
방과후학교 정책 및 방과후학교 현장 지원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징검다리 단상 ■

글 || 양원택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팀장

2010년 하반기 방과후학교 정책 방향



교육과학기술부
양원택

방과후학교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고조되고, 이제는 방과후 학교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준별 심화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험중심 특기·적성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초등 돌봄교실 기능 강화를 통한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보육비 경감,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력 향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2010년 하반기를 맞이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의 극대화를 위한 우리부 정책 방향 몇가지를 안내하고자 한다.

방과후학교 운영의 질적 수준 제고

첫째, ‘방과후학교 운영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방과후학교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체를 지난 7월 구성하였으며, 그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현장중심 정책개발, 현안 과제 논의 등을 해나갈 것이다. 또한 강사관리, 프로그램 관리 등의 시·도별 공통 과제에 대해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금년 2학기에는 단위학교 및 교육청에 보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방과후학교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안민석, 박보환 의원)을 금년 중에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수 방과후학교 벤치 마킹을 위한 우수 사례 등을 금년 11월에 개최되는 제2회 방과후학교 대상 및 콘텐츠 페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굴 및 홍보해 나갈 것이다.

방과후학교 운영의 민간참여 활성화

둘째, ‘방과후학교 운영의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금년 1월 우리부가 안내한 민간위탁 업체 선정 표준(안)을 근거로 시·도교육청 차원의 민간위탁 사전심사·검증시스템 도입, 운영으로 부적격업체의 방과후학교 진입을 사전에 차단시킬 계획이며, 시·도별로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및 전문위탁기관을 발굴·확산시킬 수 있도록 정책연구를 통해 그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취약계층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셋째, ‘취약계층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교육복지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우선 초등 돌봄교실의 대폭 확대 운영으로 저소득층·맞벌이 가정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 간식, 석식 제공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등돌봄 수요 및 유휴교실이 있는 전국 초등학교에 신규 2,000개 교실을 설치하도록 국고

400억을 지원하였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 수강하도록 1인당 연간 30만원 내외로 39만명 대상 1,410억원의 자유수강권을 지원하여 다양한 특기적성교육 및 교과 심화보충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금년 2학기부터 ‘지역연합 방과후학교’를 전국적으로 10개 권역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이는 도시 저소득 지역 중·고등학교를 권역화하여 거점학교를 지정하고 인근의 협력학교 학생들이 거점학교 강좌를 적극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우수 스타강사 및 우수 교사를 유치토록 하여, 주말 및 방학 등 틈새 시간을 활용하여 저렴한 수업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할 계획이다.

방과후학교 담당교사 업무경감

넷째, ‘방과후학교 담당교사 업무경감’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방과후학교 활성화 및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담당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방과후학교 보조인력(학부모 코디네이터, 인턴교사 등)이 에듀파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이스 인증서를 부여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우리부는 시·도교육청과 연계를 통하여 학생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과 다양한 특기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믿고 맡길 수 있는 검증된 강사 채용 및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 방과후학교가 지향하는 교육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해 나갈 것이다.

특기·적성교육이 학교현장에서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동국대학교
김수동

지식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에서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다양화된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1996년 방과 후 교육 활동으로 시작된 특기·적성교육이 시행 15년여를 맞고 있다. 특기·적성 교육은 어느 정도 선천적으로 타고난 개인의 소질과 능력 및 직업과 같은 구체적인 활동영역에서의 잠재능력을 발견하고 계발해주는 교육이다. 특기·적성교육은 처음 제안된 1995년부터 현재 까지 정책변화와 맞물리면서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어 왔는가?

특기·적성교육은 원래 학생의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의 방안으로 구안되었지만, 1996년 초 현장의 각급학교에 실시되면서 사교육비 절감의 목적이 추가되었다. 그러므로 특기·적성교육은 실시 시작부터 특기와 적성의 신장이라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과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사회경제적 목적을 포괄하고 있었던 것이다. 몇 해 전에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2004. 2. 17)에 특기·적성교육이 포함되었고 여기에는 중·고의 경우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을 허용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2005년 3월에는 학교 현장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이루어지고 있는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후 교실 등 각종 교육활동을 확대·개방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방과후학교’로 칭하였다. 이는 탈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로 특징 지워지는 21세기 사회의 학교교육에서 가장 강화되고 변화되어야 할 교육의 방향으로 강조되면서,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 폭넓게 확산되어 있다.

그러나 특기·적성교육은 아직도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중등학교의 특기·적성교육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입시 위주의 교과 교육에 밀려 제대로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다.

방과후학교에서는 교과교육보다는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 했으면 한다. 물론 교과와 관련된 특기·적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기·적성교육에서 교과 관련 내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방법을 개선해서 학생에게 접근하여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정규 교과에 관련된 내용을 주입식이나 설명식이 아닌 토의·토론방법, 탐구학습방법 등을 활용해서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교과의 진도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토의·토론하고 질의와 응답을 해가면서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가게 되면 학습의 즐거움도 더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되고, 교사도 다양한 내용과 방법을 다시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보람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특기·적성교육이란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의 계발에 적합한 내



용을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사용하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특기·적성을 발굴하고 계발하는 것을 돕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를 비롯한 여러 교과에 논술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신문만들기’반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몇 해 전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에서 우리나라 학생의 수학과 과학 성적은 상위권에 속하나 흥미와 태도 등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구성하는 변인에서는 하위권에 속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교과 교육 중심의 주입식, 설명식 교실 수업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기·적성교육은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외국의 특기·적성교육의 추세도 대체로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다양한 특기·적성과 읽기, 쓰기, 셈하기 및 사고력 교육을 실시한다. 영국은 특별활동과 교과활동 모두를 포함하지만 특별활동을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일본은 특별활동을 대신하는 동아리활동 중심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주로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따라 자유 선택으로 하고 있다.

공자님 말씀에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만 되나 직접 해 본 것은 이해된다.” 라는 말이 있다. 우리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통하여 특기·적성을 신장시킴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진정으로 학습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계 당국을 포함하여 전 국민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 교육청 소식 ■

글 || 하승희 부산시교육청 장학사

「부산 행복한 학교 재단」과 함께하는 내실있는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부산시교육청
하승희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의 모범사례가 될 「부산 행복한 학교 재단」을 올해 7월 설립하였다. 「부산 행복한 학교 재단」은 공교육을 보완하는 교육지원 분야의 사회적기업 설립을 통해 사교육 부담 해소, 공교육 내실을 기하고자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SK가 공동 협력하여 설립한 것이다. 저렴한 수강료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교육 제공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 운영에 따른 신규채용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특히,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 우수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협약에 따라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SK는 재단의 설립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펼칠 예정이며, 재단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23억원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각 5억원, SK가 13억원을 부담한다.

「부산 행복한 학교 재단」은 6월에 재단 사무국 구성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7월에 재단법인 설립 인가, 8월에는 강사채용 및 양성, 방과후학교 위탁계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2011년 상반기에 노동부에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할 계획이다. 사회적 기업과 학교자체 운영, 민간참여 위탁은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구분	학교자체 운영	민간참여 위탁	사회적기업
	프로그램 경쟁력 미흡	영리목적 통제장치 미비	교육의 공공성 확보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가적성교육에 한계 • 운영의 투명성 미흡 • 학교현장의 업무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영리추구 •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모델 개발이 용이하지 않음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연계 교육이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우수 강사확보 • 전문적·체계적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목적 견지가능 • 투명한 운영 •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올해 「부산 행복한 학교 재단」에서는 강사 94명, 사무원 6명 등 총 100명을 신규 고용하여 부산지역 5개 초등학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4년까지 채용규모를 1,000여 명까지 확대하고, 75개 초등학교 1만5천여 명의 교육을 담당할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부산 행복한 학교 사업 추진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	(주) 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행복한 학교」 설립 T/F 운영 • 법인재산 공동 출연, 법인 설립 지원 • 전문강사 소싱 및 육성 지원 • 운영학교(초등 5교) 연계 지원 • 교육컨텐츠 및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재산 공동 출연 • 물적, 인적 자원 연계 • 예비사회적기업 알자리안(비)지원 • 사회적 기업 설립 행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재산 공동 출연 • 법인 운영 및 경영 인력 지원 • SK그룹 자원과 역량의 연계방안 수립 및 지원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SK는 ‘부산 행복한학교 재단’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외에도 대학, 자원봉사 단체, 학부모 연합회 등 다양한 지역자원의 광범위한 참여 유도로 부산의 대표적인 우수 사회적기업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나누고 살피며, 섬기고 배려하여 꿈이 피어나는 인천 방과후학교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나누고 살피며, 섬기고 배려하여 꿈이 피어나는 방과후학교'란 슬로건 아래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33,897강좌를 개설하는 등 방과후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초·중·고 전체 학생의 71.6%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2009년 「사교육 없는 학교」 21교 모두 재지정 되었다. 2010년에는 10교가 신규 지정되어 운영하게 되었다. 인천방과후학교 주요 사업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모두가 힘이 되는 파트너 방과후학교 - 방과후학교 파트너십 구축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를 현재 초·중고 61%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전국최초로 방과후학교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체 초·중·고 99.5% 활용하고 있다.

또한 강화방과후학교 지원센터는 전국 단위의 공모에 선정되어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의 내실화에 힘을 실어 주고 있으며, 향후 광역 단위 방과후 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모두에게 즐거운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 - 학교 기능 보완, 교육수요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단위 벨트형 거점 방과후학교 운영 및 문화예술 분야 특별활동지원, 섬사랑 프로젝트 도서지역지역 맞춤형 프로그램과 같은 창의적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기능을 보완하고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향후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방과후 특화 프로그램 구안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복지 -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실질적인 교육복지 구현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을 배려하는 틈새 방과후학교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수요자의 선택을 우선한 방과후 자유수강권제의 운영, 엄마품 멘토링제 및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초등돌봄교실(98.7%) 및 방과후 초등무료공부방운영을 통해 교육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도 취약 계층을 위해 사회적·경제적·심리적으로 배려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 교육청은 위와 같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 성공적인 발판이 되었고,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계획,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방과후학교가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 또 하나의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수요자 만족 · 사교육 Zero화를 지향하는 대전방과후학교



대전시교육청
안효팔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수요자 만족 · 사교육 Zero화를 지향하는 대전방과후학교”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방과후학교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전방과후학교 주요 사업내용을 소개하면 **첫째, 학교교육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특기·적성 프로그램, 교과 프로그램 및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준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학생의 수준을 보장해 주고, 강사에게는 성과계약제를 통해 우수강사 유치를 하고 있다.

둘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방과후학교 사교육 Zero화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전의 특색 사업으로 초등학교 17교, 중학교 20교, 고등학교 23교를 지정하여 연간 총 498,000천원을 지원하여 학교별로 다양한 교과 프로그램 및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사교육 없는 학교」로 초등학교 5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5교를 운영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1050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50개 고등학교에서 10개 이상의 학습동아리를 운영하는 것으로 총 350,000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방과후학교를 통해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자녀 및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해 자유수강권제를 운영하는데 매년 전년도 대비 10%이상의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초

등돌봄교실을 136교 181학급에서 운영하고 있고, 방학 중에도 133교가 운영한다. 엄마표 멘토링(150명)과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넷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 및 대학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대전동구청과 협력하여 「대전동구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주교대 등 7개 대학과 함께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교원의 업무 경감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방과후학교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장애인웹접근개선 및 기능개선을 추가 했다. 또한 방과후학교 경진대회, 방과후학교 Top-School 제 운영을 통해 우수학교 발굴 및 담당자 표창, 방과후학교 업무 2년이상 담당자 표창, 방과후학교 부장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120교에 학부모 코디네이터를 배치·운영하고 있다.

여섯째, 방과후학교 컨설팅 및 외부강사 연수 강화를 통해 방과후학교 활성화 및 교육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컨설팅의 방향을 「찾아가는 맞춤형 방과후학교 컨설팅」으로 전환하고, 컨설팅단은 총6팀, 3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외부강사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외부강사를 8월부터 3기에 걸쳐 30시간의 원격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교육청은 다양한 방과후학교 활동을 통해 수요자의 만족을 향상시키고, 사교육을 줄여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누구나 학교에서 최고의 다양한 교육을 경기 방과후학교



경기도교육청
김주섭

경기 방과후학교는 「특성화, 협력, 즐거움」을 지향하며 누구나 참여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과후학교의 참여율 제고 및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특히 각급학교가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산어촌지역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획일적인 방과후학교 운영보다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실현을 통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단위학교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25개 시·군 지역교육청에 방과후학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방과후학교종합지원센터에서는 방과후학교 아이디어 접수, 외부강사 연수, 강사 인력풀,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방과후학교 관련 정보 제공, 교원 업무경감, 모니터링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둘째,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격차 완화를 위하여 자유수강권(56,323명)을 지원하고,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학생을 위하여 방과후부터 21시까지 보육과 교육을 지원하는 초등돌봄교실(1173학급)과 엄마품 멘토링(284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학습의욕 고취와 교육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기도청과 협력하여 주말 버스학교(28,414명)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전국 44개 대학과의 협약 체결을 통한 대학생 멘

토링(대학생 멘토 7,565명, 학생 멘티 4,200여명), 학교 인근에 위치한 45개의 부대와 협약 체결을 통한 군인 멘토링 및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한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가정·사회가 연계한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학교 안과 밖에 지역공부방 36개소(초 10개, 중 26개, 2,008명)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마사회,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어린이 승마교실(51개교, 1,300명)을 운영하고 있다.

넷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질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기관 프로그램을 사전에 검증해주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HI-AS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HI-AS란 HI(Happy, Interesting)-AS(After School)의 합성어로 누구나 쉽게 친근감을 갖고 접근한다는 취지를 포함한 용어이며 경기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전국 최고가 되기 위한 운동이다. 또한 관리자와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들로 구성된 프로슈머(Prosumer) 개념의 질 관리 팀을 운영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질 관리팀을 통해 우수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를 적절히 조화시켜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학교에서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방과후학교 담당자의 업무경감을 위해 방과후학교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보급하고,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900명)를 지원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명예관리자 위촉 활용, 학부모 연수를 통한 방과후학교 홍보와 지원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교육비를 경감하여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자 한다.

■ 방과후학교에 꿈과 열정을 심는 사람들 ■

글 || 조철호 속리산수정초등학교장

하루 14시간 안심보육과 알찬교육이 이루어지는 '밤에도 열린학교'



속리산수정초등학교
조철호

올해는 2003년 속리산 수정초등학교에 교장으로 부임한지 8년 째가 되는 해이다. 공립 학교에서 교장으로 8년짜이나 연속으로 근무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그것도 학생수가 6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속리산 깊은 산속의 아주 작은 학교에서 말이다.

○ 왜 8년짜이나 시골의 작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나?

공교육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내가 뿌린 교육의 씨앗이 어떻게 싹이 트고, 어떤 병충해를 어떻게 이겨내며, 김은 언제 매고, 거름은 언제 어떻게 주어야 하며, 꽃은 언제 피고, 어떻게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내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초등교육이 그리고 공교육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학교 현장에서 체험하고 싶었다.

○ '밤에도 열린학교'란 무엇인가?

낮에는 말할 것도 없이 '밤에도 열린학교'란 말이다. 2004년 11월 8일부터 속리산 관광단지내의 학부모들이 아침 8시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 영업이 끝나는 10시정도까지 하루 14시간 동안 책도 읽고,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안심보육과 알찬교육을 하는 종일돌봄 프로그램이다. 자녀들을 하나 둘밖에 낳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학교가 학생들의 놀이터이고 공부방이며 가정이란 개념으로 시작한 것이다. 저녁밥도 제공해 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놀이 공간도 제공한다. 인성과 창의성, 배려와 나눔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곳이다. 밤 10시가 되면 학교 택시로 가정까지 안전하게 보내준다.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모든 과정을 학부모에게 글이나 사진으로 보여준다.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몇 개나 되고 수익자 부담은 얼마나 되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합창, 영어, 일본어, 중국어, 골프, 피아노, 바이올린, 공부방 등 40여종에 이른다. 어려서부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함이다. 수익자 부담은 피아노, 바이올린, 원격화상1:1영어 등 세 가지가 월 30,000원에 그리기, 컴퓨터, 서예가 월 10,000원씩이고 나머지는 무료이다. 일과전 영어 교육, 영어 인증제, 방과후 영어 등을 인정받아 전국 영어 최우수 리더학교로 표창을 받기도 하고, 전국 방과후 학교 우수 사례로 2년 연속 방과후 페스티벌 때 소개되기도 하였다.



속리산한자교실 (밤에도 열린학교)

○ 농산어촌 모델학교를 만든다구요?

예, 농촌 지역 교육의 어려움을 모두 만족시키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 바로 '21세기 행복한 배움터'이다. 학생은 창의와 슬기를 배우며 행복하고, 교사는 가르치는 즐거움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행복해 하는 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학교와 선생님에게 만족과 신뢰를 보내며 행복에 충만한 정말 행복한 학교로 만들고 싶다.

밤에도 열린학교 + 방과후학교 = 21세기 행복한 배움터(농산어촌 모델학교)

방과후학교 마법에 걸렸어요!



대전가오초등학교
김순옥

2008년 3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현임교에 발령을 받고 2월 26일 교내 업무분장으로 인해 임시 출근을 하였다. 나에게 주어진 업무는 방과후학교 총괄, ... 많은 업무가 지정되어 있었다. 다른 선생님들에게는 어떤 업무가 배정되었는지 형평성을 살펴볼 경황도 없이 다른 글자는 안보이고 '방과후학교'라는 글자만 환하게 눈에 보였다. 집에 와서 마음을 가다듬고, 전임교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자인 후배에게 전화했다. 나름 위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전화기에서 아주 자신감있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 어려운 그리고 처음 생기는 정보부장도 7년이나 하셨는데, 방과후학교 업무쯤이야 식은 죽먹기이실걸요?'하는 후배가 조금은 미웠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래, 내가 그 정도 능력이 되니까 그런 큰 업무를 주셨겠지!' 생각하며 방과후학교에 관한 업무 추진 일련의 과정을 물어가며 받아 적었다.

3월 2일 개학이 되었으나 이틀간은 잠을 못 잤다. 이때부터 벌떡병이 시작되었고, 어차피 자다가 일어났으니 3월 방과후학교 업무 추진 일정표를 만들었다. 전년도 공문 색인목록을 통해 1년간 어떤 일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2월에 실시한 부서 수요조사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강사임용 기안을 하였다. 강사 임용 신청 접수를 하는 기간 중에는 부서별 교실 배치를 결정하고, 강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방과후학교 강사 임용 과정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었기 때문에 학부모,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투명하게 이루어졌다.

외부강사 15명을 선발하여 강사 모임을 통해 본교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부서별 안내장 작성 요령, 부서별 포트폴리오 작성법, 강사들의 업무 처리 순서 및 관련 서류 정비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하였다. 강사들도 1년 동안 할 일이 한 눈에 보이니까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체계화되어 있어서 좋아요!'라면서 나에게 힘을 줄 때 마법에 걸려 지금까지 방과후학교 업무를 손에서 못놓고 있다. 2008년은 월평균 500여명의 수강생이 있어서 나의 뒷받침을 필요로 했고, 2009년은 월평균 570여명의 수강생이 있어서 방학 중에도 나를 학교로 오게 만들었다. 특히, 2008년 대전광역시 방과후학교경진대회에서는 우수상(2위)를 수상하여 나는 더욱 즐겁게 일할 수 있었다.

우리 학교의 방과후학교 명성은 점점 알려져, 많은 지원사업을 했다. 그 중에서 특히 대전동구방과후학교지원센터 지원을 받아 '한국사능력자격검정부'를 48명의 학생이 수강하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8월 14일 한국사능력검정자격증에 도전한다.

2009년과 2010년 방과후학교 업무는 내가 자청해서 하게 된 것이다. 아이들이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기에 기피 업무로 불리는 방과후학교를 선택하게 되었고, 방과후학교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올해는 '방과후학교 부장'으로 임명받았다. 현재 수강생은 700명을 넘고 있어, 앞으로는 방과후학교 시간 중에 외부인들의 학교 출입과 관련하여 학생을 보호하는 일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사랑과 열정으로 모두가 행복한 돌봄교실



동대전초등학교
이연숙

2007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돌봄교사 모집공고를 보고 전공을 살리며 늦둥이 막내를 보는 마음으로 돌봄교실과 인연을 맺었다. 반짝 반짝 빛나는 눈망울로 나를 바라보는 24명의 아이들을 ‘나를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자’는 교육목표로 지도하고 있다.

은행나무반에서는 1순위를 제외한 2순위에 해당하는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추첨을 시작으로 24명이 연둣빛 새순과 함께 한다. 첫 시간이면 생활지도와 함께 가족화를 그리게 한다. 아이의 거울은 가족이고, 돌봄교사인 나도 사랑과 열정을 다하여 그 거울 속에 합류하기 위함이다.

이야기와 체험을 통한 역사논술, 노래와 게임을 통한 구구단과 영어, 한자자격증, 종이접기, 마인드맵, 북아트, 만들기, NIE수업, 교과보충지도, 연산, 신체활동, 현장 체험학습, 인성교육, 독서논술 등이 은행나무반 돌봄교실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칠교놀이와 창의색 종이접기, 포디 프레임등 남과 다름을 추구하는 창의적인 사고로 2학기에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진행되는 수리과학창의대회에 출전하려한다.

매주 월요일이면 새 소식을 전하려는 내일의 앵커들이 기자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격주 금요일에 열리는 골든 벨! 자기 주도적으로 골든 벨 예상문제를 만들어 준비하는 아이들은 2주 동안 놀이 속에서 학습한 것들을 골든 벨 놀이로 다시 한 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으며, 칭찬받을 일이 생기면 선생님 등에 업혀서 교실을 한 바퀴 돌며 친구들로부터 축하를 받는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학부모님들께 공개수업 참관(17~18명)후 집단 상담을 통해 꿈을 키우는 아이들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한마음으로 공유하며 사랑과 열정으로 모두가 행복한 돌봄교실이 되고자 피드백을 드리기도 한다.

‘돌봄교실에서의 돌봄만을 강조하는 것은 전문적인 자격이 없는 누구나 할 수 있으리라.’ 하지만 돌봄교실에서의 역할은 돌봄과 교육활동이 1:9로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단 교육활동이 암기식, 주입식으로 이뤄지기보다는 놀이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체험하며 즐거움으로 이뤄지다보니 돌봄교실에 들어오려는 아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한명의 선생님이 보조교사도 없는 상황에서 방학 때 5일 휴가를 빼고는 아플 수도 없는 현실이다.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사랑과 열정을 다하여 학부모님과 상담, 교재 연구와 준비를 하며 혼자이기에 어려웠던 일들이 대전초등학교보육교사연합회장을 맡아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계기가 되었고, 2009년 4월 서울교대에서 전국초등학교보육교사연합회 발대식을 갖으며 공동회장으로서 전국 돌봄교사들의 꿈과 비전을 향해 함께 노력하며, 돌봄교사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다양한 연수와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거울 같은 선생님이 되려고 더욱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많은 은행나무반 돌봄교실은 가정같이 편안한 돌봄교실, 엄마 품처럼 따뜻한 엄마 같은 선생님이 되어 사랑과 열정으로 모두가 행복한 돌봄교실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스린십



신체활동



골든 벨



개별학습

배움을 넘어 즐거움의 공동체로-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김세영

방과후학교 부담의 어려움을 딛고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업무를 담당한 것도 올해로 3년째가 됩니다. 3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방과후학교의 업무는 그 목표와 가치를 떠나서라도 행정적, 교육적 부담이 큰 업무였습니다.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와는 달리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의 의미는 좀 달랐습니다. 방과후학교가 보충 수업 화 된 다수의 인문계 고등학교는 대학진학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전문계 고등학교는 대학진학을 위한 강좌 외에도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강좌, 특기적성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강좌 등이 있어야 방과후학교의 목표와 가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방과후학교가 꿈 같은 업무로

이 같은 교육적 부담 속에서도 3년간 방과후학교 업무를 담당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 학생들 때문이었습니다. 본교는 매년 약 100명에 가까운 기초생활 수급자가 있으며, 그 외에도 형편이 어려운 담임추천자들을 더하면 학기당 약 300명정도의 학생들이 학교가 끝난 후 방과후교육이 없다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제게 맡겨졌던 방과후학교라는 업무는 비록 힘들었지만 우리 학생들의 교육 균등의 기회를 높이고 나아가 다양한 교육, 질 높은 교육이 실현가능하다는 점에서 제겐 꿈과 같은 업무였습니다.

열정있는 방과후학교로 거듭나다

특히, 올해 울산 유일의 마이스터고등학교로 탈바꿈 하면서 방과후학교의 비중은 더욱 커졌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승패는 방과후교육에 달려있다 할 정도로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핵심교육과정의 거대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교의 방과후학교는 "배움을 넘어 즐거움의 공동체로~"란 모토 아래 외국어능력, 직업기초능력, 인성함양에 기초한 51개의 다양한 강좌를 현실화 시키고 있습니다. 1인 1특기강좌, 전문 NIE 및 독서교육, MCAS 자격증 마스터강좌, 실전토익강좌 등을 요일별 몰입 프로그램화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 울산광역시 북구청, 신문사업소, 울산광역시 북구문화원, 아하 경제 신문등과 연계를 통해 본교의 방과후학교가 지역사회 단체들과 연계하여 그 교육과정이 더욱 살찌워지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시작단계에서 느리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 성과가 하나 둘씩 나타나는 것을 볼 때 학생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합니다. 방과후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실현된다면 지난 몇 년간의 어려웠던 방과후학교 업무 부담이 훨훨 날아갈 것도 같습니다.

배움을 넘어 즐거움의 공동체에서 학생들 개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는 그 날까지 질 높은 방과후학교를 위해 오늘도 고민할 것입니다.

■ 방과후학교 뉴스 ■

방과후학교 현황조사 온라인시스템(ASO) 구축



교육과학기술부는 방과후학교 성과 관리의 일환으로 전국의 방과후학교 현황조사를 매년 2차례 실시해 왔다. 엑셀로 된 조사 양식을 시·도교육청에 제공하여, 이것을 다시 지역교육청(초, 중학교)이나 단위 학교(고등학교)로 전달하였다. 단위 학교에서 수합된 자료는 지역교육청에서 종합, 정리하여 시·도교육청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공되었으며, 수합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전국적인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 방식은 방과후학교 담당자들에게 업무의 부담을 주었고, 데이터 취합에 있어서도 정확성이 떨어졌다. 이에 방과후학교 현황조사를 온라인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데이터의 신뢰도도 높이고, 연도별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방과후학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방과후학교 현황조사 시스템을 크게 단위학교에서 활용하는 입력 시스템과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하는 통계 조회 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첫 번째 단위 학교용 입력 시스템은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과 초등 돌봄 교실의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방과후학교 현황 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는 방과후학교 운영여부와 관계없이 단위 학교 모두 각 단위 학교별로 학생수, 교원 수, 교실 수 등의 자료를 입력하도록 했고,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는 참여 학생수, 부장 교사제 운영, 강좌 현황, 강사 현황, 학생 부담액, 강사료, 외부 인력 지원 현황, 외부 지원 현황,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포함되어 있다. 강좌 현황의 경우 유형별 강좌 현황, 내용별 강좌 현황, 외부 위탁 강좌 현황으로 분류하여 입력하고 토요일 휴업일 강좌나 방학 기간 운영 강좌, 학교간 연계되는 강좌를 조사하여 방과후학교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 돌봄 교실은 초등 돌봄 교실수, 운영 주체별 교실 수, 참여 학생 현황, 학생 부담액, 월평균 강사료, 시간대별 운영 현황, 학년별 참여 학생 수에 대해 입력하도록 하여 그 결과 데이터를 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조회해 봄으로써 초등 돌봄 교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두 번째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하는 통계 조회 시스템은 단위 학교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항목의 합계, 비율, 평균 등을 조회하고 도표나 차트로도 바꾸어 봄으로써 방과후학교 및 초등 돌봄 교실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살펴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으로 구분하여 조회함으로써 지역별 방과후학교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조회할 경우 행정구역(시군구)으로도 구분하여 조회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일반고, 외국어고,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 체육고, 전문계고로도 구분하여 제공함에 따라 학교 특성별 비교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방과후학교 현황조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6월과 10월에 조사된 자료는 방과후학교 실태 파악 및 차후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자료는 한시적인 아닌 연도별 누적된 데이터로 방과후학교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010년 조사된 방과후학교 현황 조사 자료는 2011년 차세대 NEIS가 서비스될 때 데이터를 이관하여 축적할 것을 제안하며 이러한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방과후학교의 발전 추이를 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어지는 첫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2회 방과후학교 대상 『방과후가 행복한 학교』 공모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정책연구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 삼성꿈장학재단, 중앙일보가 공동주관하는 제2회 방과후학교대상 사업을 운영한다. 방과후학교대상은 방과후학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제정한 상으로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 후 시상식을 통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제2회 방과후학교대상 시상 부문은 방과후학교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공헌한 **교사 부문**(외부강사, 보육교사 및 자원봉사자 포함), 방과후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방과후학교가 안정적인 교육제도로 정착·유지되는데 기여한 **학교 부문**,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연계하여 다양한 도움을 나누어준 **지역사회파트너 부문**(지방자치단체, 비영리 지역사회 기관·단체)로 3개 부문에서 총 19개상(대상 1개, 최우수상 5개, 우수상 13개)이 수여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인터뷰 및 현장심사로 진행되며, 심사 지표는 가치 및 의식 영역, 운영의 적절성 영역, 성과 영역, 독창성 영역이다. 2차 인터뷰 및 현장심사는 우수 후보군에 한하여 실시될 예정이다. 신청 접수 마감은 8월 31일(화)이며, 자세한 접수 방법은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www.kedi.re.kr)의 신청요강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02-3460-0420, 0272

♣ 방과후학교대상 표창 훈격 및 시상내용

부 문	표창훈격	시상내용				상금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합계		
대 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1			1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100만원)	
교사상	현직교사		1	3	4		
	외부강사·보육강사·자원봉사자		1	3	4		
학교상	초등학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1	3	4		
	중학교						
	고등학교						
지역사회파트너상	지방자치단체	중앙일보시장상	1	2	3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비영리 지역사회기관단체	삼성꿈장학재단이사장상	1	2	3		
계			1	5	13		19

♣ 2010 제2회 방과후학교대상 시상식



- 일 시 : 2010년 11월 23일(화) 14시
- 장 소 : 서울 양재AT센터(1층 전시관)
- 주 최 : 교육과학기술부
- 공동주관 : 한국교육개발원
삼성꿈장학재단
중앙일보

지자체교육청 공동운영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성과보고회 개최



2009년 8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공모·지정되어 시범운영 중인 10개 지역 지자체·교육청 공동운영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성과보고회'가 지난 7월 한 달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개최되었다. 각 센터는 지난 1년간의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사업성과를 보고하고, 지역사회와 방과후학교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자체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성과보고회 일정 §

일시	7월 7일(수)	7월 8일(목)	7월 16일(금)	7월 17일(토)	7월 19일(월)
지원센터	전북정읍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대전동구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충북청원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인천강화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부산남구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일시	7월 20일(화)	7월 21일(수)	7월 22일(목)	7월 23일(금)	7월 30일(금)
지원센터	충남금산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충남공주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광주효사랑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경북문경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부산서구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성과보고회는 센터장인 지자체장 및 교육장 등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초·중등학교장,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 타지역 방과후학교지원센터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방과후학교 성과보고회는 성과보고, 우수사례 발표, 우수학교 참관, 성과보고 동영상, 학생 발표 및 산출물 전시, 특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최되었다. 성과보고회를 통해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이해가 제고되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관계가 공고히 되고, 학생들은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배운 재능을 마음껏 발표하고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8월 23(월)~24(화) 1박 2일 동안에는 제주도에서 「2010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종합성과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10개 지역의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성과보고를 종합적으로 발표하고, 추후 지자체·교육청 공동운영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10개 지원센터의 지자체 및 교육청 관계자,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지자체·교육청 공동운영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2년차 10개 지역 지자체·교육청 공동운영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지원할 계획이다.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TF팀 구성·운영

최근,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내에서 담아낼 수 있기에 학교운동을 통하여 진정한 교육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수준 높은 강사와 학생들의 교육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의 질 관리」가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2010년 방과후학교 운영의 극대화를 위해 교과부는 현장착근 차원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방과후학교 운영의 질 제고」를 위한 운영체제의 유연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운영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팀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방과후학교 시도 교육청 담당자 협의체를 지난 7월 구성하였으며, 그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현장중심 정책개발, 현안 과제 등을 논의 해나가고 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및 교육개발원의 연구·협력을 통해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 및 메뉴얼을 마련하여 금년 2학기에는 단위학교 및 교육청에 보급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TF팀(단위학교 교원, 방과후학교 전문가, 시도 및 지역교육청 장학사)을 지난 7월에 구성하였고 지난 7월 28일~29일 1차 집중작업을 실시하였고, 논의된 내용을 검토 및 수정 보완하여 8월 9일~10일 2차 집중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안)은 시·도교육청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보급 및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자료집(가이드라인)에는 방과후학교 총론, 운영방향, 홍보 및 연수 및 교사업무경감 및 인센티브, 강사관리, 프로그램 관리, 등의 시·도별 공통 현안 과제에 대해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방과후학교 메뉴얼 또는 가이드라인을 담을 계획이다.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분야별 영역은 다음과 같다.

분과	분야별 영역
총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 종합 및 T/F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방향 및 절차 /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및 홍보(우수사례 홍보 포함)
지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운영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지자체 연계)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사관리(성과급, 강사인증, 복무 등 포함) •프로그램 관리, 수강료 관리(징수, 환불 등 포함) •학생관리(출결관리, 귀가지원, 안전지도, 생활지도, 학생상담, 학습관리 등 포함)
단위학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확보 (학부모 코디네이터, 전담인력 등 포함) •방과후학교 회계관리, 방과후학교 평가(컨설팅, 모니터링 포함) •방과후학교 담당교사 업무경감 및 인센티브(부장교사, 관리수당 포함)
사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멘토링 운영(엄마품, 대학생 멘토링 포함),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자유수강권 지원(사통망 연계 포함), 초등돌봄교실 운영, 급식 방안